

기초 교리부터 화두 드는 법까지 일목요연

‘조계종 신도 간화선 수행프로그램 교안’ 나온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이 <조계종 신도 간화선 수행프로그램 교안>(이하 수행프로그램 교안)을 마련 12월 8일 관계전문가들을 초청, 자문회의를 열었다. 현재 교포원이 편찬해 2005년 2월 간행 예정인 <간화선 수행지침서>가 교과서라면 포교원의 <수행프로그램 교안>은 지도자용 강의안인 셈이다.

조계종이 수행중흥 전략을 핵심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재가불자들에게 좀더 쉽고 체계화된 간화선 수행법을 알려주고자 마련하는 <수행프로그램 교안>은 중도, 사성제, 팔정도, 연기와 같은 교리뿐만 아니라 화두를 들고 실천(實參)하는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다. 교(敎)와 선(禪)을 망라하고 있는 것이다.

<수행프로그램 교안>은 전체 10장으로 주제의 특징과 목표, 세부계획안, 질의응답, 토론회를 불 문제 등으로 구성됐다. 교안은 자문회의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 수정 후 선원장 스님들의 감수를 거쳐 내년 초 발간될 예정이다. 각각 별로 핵심내용을 요약했다.

제 1강 불교 수행의 이해

불교란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지향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종교의 공통 목적과 불교의 목적이 공히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선종에서는 ‘중생이 본래 부처이고 현실 이대로가 극락세계’라고 본다. 또 성철 스님과 경전 속 부처님 말씀을 통해 선종의 본래부처 사상과 분별망상 문제를 설명한다. 문제 해결방법은 분별망상을 화두로 다스리며 보시 봉사 수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제 2강 양변을 여윈 삶-중도의 이해

부처님은 무엇을 깨쳤는가. 그 핵심은 바로 중도다.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한 것 설법이 바로 중도대전설이다. 여기서 밝힌 중도란 극단적인 두 가지에 집착하지 말고 버리라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중도는 무엇인지, 초기불교에서부터 대승불교에 이르기까지 중도를 어떻게 설명해 왔으며 율수보살은 <중론>에서 중도를 어떻게 말했는지, 선종에서 바라보는 중도는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 역사 속 중도의 정의를 통해 중도사상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모순 대립된 상대적 차별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화통하는 절대 원융의 대원리를 설명한다. 팔정도 사성제 무어를 통해 선과 교를 이루는 원리로 중도를 이해할 것을 강조한다. 중도의 특장성을 알기 위해 중도와 중용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 3강 괴로움의 원인과 해법

-사성제, 팔정도
행복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이자 중

교를 믿는 목표이기도 하다. 행복을 가로막는 인간의 근본 문제인 4고와 8고를 바로 보는 법에서부터 발심이 생긴다.

고통스런 생활에 대한 해법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사성제에서 찾을 수 있다. 괴로움의 원인인 삼독심과 무명을 바로 알

총 10강, 각 장 주제·특징·목표 등으로 구성 자문회의·선원장 감수 거쳐 내년 초 발간

고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팔정도를 닦아야 한다. 부처님이 설한 중도는 곧 팔정도이며 팔정도는 사성제의 도성제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중도와 팔정도, 사성제의 관계를 설명한다.

제 4강 우주의 존재원리-연기

연기는 우주의 존재원리이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즉 연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우주에 존재하는 나의 존재는 5은 12처 18계로 이루어져 있다. 우주 만물이 연기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정견이다. 정견 즉 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세우면 분별심을 여의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12연기를 이해하면 우리 존재의 실상을 바로 알게 되고 지혜롭고 평화롭게 사는 길이 열린다. 본래 부처 본래 성불의 이해도 연기를 알면 가능하다. 중도 정견을 깨치기 위해 참선으로 마음을 깨쳐야 한다.

제 5강 지혜와 자비의 길

-무아, 공의 이해
불교에서 ‘무아’를 말하는데 그렇다면 윤회하고 존재하는 현실의 ‘나’는 누구인가. 부처님은 연기로 존재하는 일시적으로 화합했을 뿐인 ‘나’가 있다고 설한다. 무아와 공 사상은 ‘없다’가 아니라 우주 만물이 서로 의지하여 존재하는 공동체라는 것이기 때문에 허무주의와 다르다. 제법무아 제행무상 일체개교(일반적정의 삼법인)을 알고 공 사상을 이해하면 지혜와 자비의 길이 보인다.

제 6강 인과법의 이해와 참회(懺悔) 향상(向上)의 길

연기법으로 존재하는 관계의 원인과 결과가 인과법이다. 인과법을 이루는 업은 신(身)구(口)의(意) 삼업을 통한 행위와 결과인 것이다. 부처님도 인과법은 피할 수 없다. 업을 짓고 사는 불자들은 윤회를 한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은 중도 정견을 바로 알아 수행해서 깨쳐야 가능

제 7강 간화선의 이해

선이란 무엇인가. 이 자리에서 본래 자신이 부처임을 단도직입하는 것이다. 선의 핵심 즉 선지를 체득하는 것이다. 중도 연기 무아 공을 자기 마음에서 깨치는 것이 선이라는 설명이다. 부처님이 깨친 경지를 말로 표현한 것이 교라면 부처님의 깨친 그 마음을 직접 보인 것이 선이다. 달마대사로부터 시작된 조사선은 12세기 대혜종교 선사에게 의해 간화선이 주장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간화선은 조사스님들이 제시한 화두를 참구해 깨달음에 이르는 생활 수행법이다. 본래성불, 불립문자, 자지인심, 견성성불 등이 간화선의 특징이다. 견성성불은 화두를 타파해서 볼 수 있는 자성이 본래 부처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제 8강 화두 드는 법

간화선에서 제시하는 화두는 1700가지이다. 화두는 공안 또는 고척이라고도 불린다. 화두 참구 전에 발심이 확고한지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

간화선에서 스승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선지식을 찾아 친견하고 화두를 받고 정기적인 입실점검을 해야 한다. 화두를 받으면 자기에게 ‘맞다. 맞지 않다’ 분별하면 안 된다.

중간에 화두를 바꾸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성적인 분별심으로 화두를 풀어 가는 것은 바른 공부 아니다. 대혜종교 선사가 저술한 <서장>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에서 화두드는 법을 설명하고 서산 스님의 <선가귀감>에서 나온 화두 점검법과 일상생활에서의 점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제 9강 좌선법 이해와 실참실수

좌선을 어떻게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조사선에서는 법문 선포답 노동 좌선 등이 모두 수행이다. 초심자들은 좌선으로 시작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법당이나 집 등 조용하고 정결한 장소에서 참선을 한다.

방석 위에 앉아 왼쪽다리를 오른쪽 다리 위에 올려 반가부좌를 든다. 허리는 일직선이 되도록 자연스럽게 세운다. 오른손바닥을 단전에 놓고 왼손을 그 위에 얹어 양 엄지를 동그랗게 한다. 시선은 1-2m 앞 바닥에 둔다. 음식과 수면은 적당히 조절하고 무리하게 화두를 들어기가 가슴과 머리로 불리는 상기(上氣) 증상이 나타나면 조용히 걸으면서 기를 다스린다.

간화선은 생활 수행이므로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이라도 꼬박 꼬박해야 한다.

제 10강 수행공동체의 길 및 종합정리

불교교단은 사부대중의 평등공동체이다. 부처님 당시 인도 사회는 카스트 신분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평등공동체를 지향했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불자들의 수행공동체이다. 사부대중 공동체인 한국 조계종의 역사와 종지종풍을 통해 진정한 공동체란 무엇인지 이해한다. 불교수행은 중도 연기를 바탕으로 하지만 외도수행은 보편적인 진리에 바탕하지 않음을 비교해 알아야 한다.

정리=강지연 기자 jgyang@buddhapia.com



전문가들이 교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홍동 원장, 박영재 교수, 진명 스님, 선웅 스님, 영석 스님.

“간화선 역사·개념 명확히” 교안 자문회의 어떤 얘기 나왔나

12월 8일 열린 <조계종 신도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 교안> 자문회의에서 서강대 물리학과 박영재 교수, 한별정신병원 최홍동 원장 등은 △간화선에 위빠사나, 주력, 염불 등 여러 가지 수행법에 대한 소개와 서술이 다소 부족하고 △국내외 재가불자들의 수행 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불교 용어들을 보다 쉽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최홍동 원장은 선수행과 계율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선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간화선의 핵심 내용인 의단(疑團)·수행과정에서 일어나는 의문

목적지 간화선을 체계화하는데 있기 때문에 위빠사나 같은 다른 수행법까지 정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포교연구실장 진명 스님은 “화두참구를 통해 돈오(頓悟) 경지에 오르게 되면 계율의 의미는 다소 약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반론을 제기하면서도 “수행에서 계(戒) 정(定) 혜(慧) 삼학(三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만큼 좀 더 보충하겠다”고 답했다.

위빠사나 등의 수행법을 제시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이견(異見)’을 나타냈던 최원장과는 달리 박영재 교수는 “간화선은 생활선”이라는 견해를 표명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

했다. 박 교수는 스승의 성인들과 한국불교 고승들의 체형 예시 △수행력이 높은 스님이나 재가불자들에게 입실점검(入室點檢) 받기 △동정일어(動靜一如), 몽중일어(夢中一如), 오매일어(寤寐一如) 등 어려운 용어보다 심우도(心牛圖)처럼 불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 부족 △초심자들이 바로 화두를 들기 어려운 현실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이어 “백일법문”과 함께 <서장> <무문론> <벽암록>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가자들의 수행일화를 알기 쉽게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영석 스님은 “달마 이래 선의 모든 부분을 정리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보다 쉽게 정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프로그램의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2547(2003)학년도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선정 우수교육기관

불광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불광불교대학은 한국불교의 ‘전법(傳法) 1번지’로 대한불교조계종 인가 전문교육기관입니다. 1979년 이래 교계 큰스님과 최고 수준 교수진 초빙으로 명망의를 떨쳐오고 있는 가운데, 초발심과정에서부터 지도자과정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눈높이(順次) 교육’으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I. 교과과정(2년제 4학기)

- 1학년 : 불교교리 · 불교역사 개설 · 불교의식문의 이해 · 반야심경의 이해 · 천수경의 이해 · 일반포교론 · 불교의 의식집전 · 바라밀신행과 불광운동

- 2학년 : 불대전 · 한국불교사 · 자원봉사론 · 불교상담 · 수행원리 · 보현행원풍의 이해 · 불교문화개론 · 불교관혼상제의 이해 · 불교음악 · 불교미술 · 순수불교

II. 모집부분

총 250명(아침반 10:00 ~ 12:00, 저녁반 7:30 ~ 9:30 매주 화요일)

V. 교육동참금

- 60만원(학기당 15만원 등록 가능)
- ※ 교재비 별도

III. 지원자격

대한불교조계종 신도중 소지자로 불자(신도)기본교육 수료자

VI. 특전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고시 응시자격 부여
- 불광법회 명교사(明教師) 자격 부여
- 학업성적우수자 불광교수단 등용

IV. 전형일정

1. 원서교부 : 12월 19일(일)부터 본교 교무처 또는 홈페이지
2. 원서접수 : 2005년 1월 2일(일) ~ 1월 24일(월) 접수
3. 제출서류 : (신도)기본교육 수료증 사본
입학지원서(본교 소정양식)
사진 2장(3×4크기 반명함판)
4. 전형방법 : 서류전형
5. 합격자발표 : 1월 30일(일) 본교 게시판과 홈페이지

■ 원서 교부 및 문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183 불광교육원 교무처
Tel. 02)417-2551(대표)
Fax. 02)417-2552, aloka-edu@hanmail.net
http://www.bulkwang.org 불광불교대학 · 불광교육원

